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 수 균	전 지 혜	안 정 신	정 영 숙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과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조사하여 갈등영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남녀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자녀가 있는 40~59세 중년남성 103명, 중년여성 115명(평균연령 51.16)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40~59세의 중년부모가 있는 남자 대학생 143명과 여자 대학생 148명(평균연령 21.80)을 대상으로 개방형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은 자녀의 자기관리, 자녀와의 관계,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강요 및 간섭, 부모의 생활, 기타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남성은 자녀의 대학생생활에서, 중년여성은 자녀의 분리 및 의존에서 자녀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자 대학생은 의사소통, 부모의 편애, 생활관리에서 남자 대학생보다 중년부모와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년기, 부모-자녀 갈등, 대학생 자녀 갈등, 탐색적 연구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88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영숙,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Tel : 051-510-2135, E-mail : yschong@pusan.ac.kr

중년기는 사회 및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로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의 악화를 경험하거나, 자녀 및 노부모 부양역할에 대한 이중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신체적, 생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애순, 윤진, 1993).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중년기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이 경험적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으며, 중년기의 심리적 위기나 적응이 중년기 가족관계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김명자, 1989, 1991; 김애순, 1993; 박준희, 2004; 이은아, 2007; 이은아, 정혜정, 2007; 한미선, 1992). 한국의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가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가 중년기의 적응적인 삶뿐만 아니라 중년부모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기숙, 이혁구, 2004; 정상미, 2013). 중년기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예비 노년단계로서, 중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한마디로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 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말한다(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최인재, 2006). 한국의 자녀양육방식은 자녀의 독립성, 개별성을 격려하는 서구와는 달리 부모-자녀간의 일심동체(一心同體)적 관계를 추구한다(최상진, 2000). 이러한 관계에서는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곧 자녀의 감정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 자신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지나치게 밀착, 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야기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갈등은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다(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김현수, 김현실, 2002; 박영신, 김의철, 2000; Ary et al., 1999; Warrick-Swansen, 1999).

부모가 중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녀들 또한 대부분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들은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부모와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다(Douvan & Adelson, 1966; Hill & Holmbeck, 1986; Montemayor, 1982; Steinberg, 1981; Steinberg & Hill, 1978). 중년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갈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더 큰 자유를 추구하는데 반해,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려하고, 이로 인해 부모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들은 힘과 성적욕구가 증가하고 일에 대한 숙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반해, 중년기의 부모들은 자신의 외모나 건강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면서 자녀를 질투하게 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Bengtson & Kuypers, 1971; Steinberg, 1981).

한국은 법적으로 성인 나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인 면에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독립이 늦어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 교육제도의 경직성 및 한국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구의 가정에서는 중, 고등학교시기에 겪는 부모와의 갈등을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생이 되어서야 겪게 된다(정현숙, 2009). Donald, Dower, Correa-Velez와 Jones(2006)는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성인으로의 전환과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깝게 성장하였으나, 심리, 정서적으로는 아직 미숙하며,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외적으로는 경제적 독립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면서 내, 외적으로 혼란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최근 한국 대학생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강석화와 나동석(2013)은 이러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진(2009)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대학생이 자살사고가 더 높고, 정신건강이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정현숙,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부분의 중년부모-자녀 간 갈등에 관한 연구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알려진 사춘기 청소년(13~18세) 자녀와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미선(1992)은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참가자의 자녀 중 60%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영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원희(1992)도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자녀와의 갈등

요인을 제안하고 있으나, 연구 참여자의 자녀 연령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중년부모-자녀 간 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수연, 1996; 이영미, 한재희, 2013; 이주옥, 1993; 한남제, 1984; 한미선, 1992; Smetana, 1989).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년부모의 자녀를 대학생 자녀로 한정하고 중년부모가 대학생 자녀와 실제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의 제 영역을 확인하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각 영역별로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중년기 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의 남녀 차를 직접 다룬 연구는 드물며,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 가족관계 스트레스,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박준희(2004)와 김명자(1991)는 중년여성의 경우,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자녀의 입시나 자녀 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여성에게 더 집중되면서 남성보다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Montemayor(1982), Alessandri와 Wozniak(1987)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집안일을 수행함으로써 주로 일상적인 가족생활 영역에서 갈등이 있는 반면, 아버지는 위기 상황에서 주로 개입하여, 부모 권위에 도전하고 이를 테스트하려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결

혼 전까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 양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자녀와 중년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 부모와의 세대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요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오영희, 2003; 오영희, 2004; 이경순, 서경현, 2011; 이지선, 2009; 정태연, 2001).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갈등이 주요한 변인으로 제안되었다. 대학입시로 미뤄두었던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이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은 중, 고등학생 시기와는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서진숙, 이정애, 박소현(1992)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였으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권위성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의 제 영역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휘숙(1999)과 오영희(2003)도 서진숙 등(1992)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학생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상황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갈등상황이나 경험이 많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만 파악하는데 그치고 합의과정을 통한 갈등영역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제 경험하는 갈등을 체계적인 합의과정을 바탕으로 갈등의 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어 남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조운주(2002)의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주옥(1993)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은 부모 자신이 받아들인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자녀의 성에 따라 상이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아들에게는 대학 입시를 더욱 강조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 딸에게는 대학 입시를 강조하기는 하되, 집안일이라든지 행동규제 등에서 갈등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부모-자녀 갈등은 자녀의 성에 따라서 일관된 보고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신효식, 이경주, 200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자녀가 실제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경험하는 갈등의 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남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한국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에게 맞는 중년부모 및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갈등 척도 개발과 갈등 관련 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노년기로 넘어가는 예비 노년단계로서 성공적 노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18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의 대학생 302명이었다. 중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59부의 설문지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41부를 제외하고 2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년부모의 연령은 51.16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부모 259명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중년기 연령(40~59세)에 속하는 부모를 둔 부산지역 소재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중년부모(N=218)			대학생자녀(N=291)				
	남 n (%)	여 n (%)	전체 N (%)	남 n (%)	여 n (%)	전체 N (%)		
참가자 수	103 (47.25)	115 (52.75)	218 (100.00)	143 (49.14)	148 (50.86)	291 (100.00)		
연령	40~44세	2 (1.94)	5 (4.35)	7 (3.21)	20세 미만	25 (17.48)	18 (12.16)	43 (14.78)
	45~49세	12 (11.65)	44 (38.26)	56 (25.69)	20~24세	87 (60.84)	127 (85.81)	214 (73.54)
	50~54세	57 (55.34)	53 (46.09)	110 (50.46)	25~29세	28 (19.58)	2 (1.35)	30 (10.31)
	55~59세	32 (31.07)	13 (11.30)	45 (20.64)	30세 이상	0 (0.00)	1 (0.68)	1 (0.34)
					무응답	3 (2.10)	0 (0.00)	3 (1.03)
교육 수준	무학	0 (0.00)	1 (0.87)	1 (0.46)	1학년	33 (23.08)	2 (1.35)	35 (12.03)
	초졸	1 (0.97)	2 (1.74)	3 (1.38)	2학년	32 (22.38)	36 (24.32)	68 (23.37)
	중졸	2 (1.94)	4 (3.48)	6 (2.75)	3학년	29 (20.28)	55 (37.16)	84 (28.87)
	고졸	33 (32.04)	51 (44.35)	84 (38.53)	4학년	45 (31.47)	55 (37.21)	100 (34.36)
	대졸	53 (51.46)	51 (44.35)	104 (47.71)	무응답	4 (2.80)	0 (0.00)	4 (1.37)
	대학원졸	13 (12.62)	4 (3.48)	17 (7.80)				
	무응답	1 (0.97)	2 (1.74)	3 (1.38)				
동거 여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68 (66.02)	75 (65.22)	143 (65.60)	부모와 함께 산다	70 (48.95)	81 (54.73)	151 (51.89)
	자녀와 따로 살고 있다	34 (33.01)	36 (31.30)	70 (32.11)	어머니와 함께 산다	9 (6.29)	5 (3.38)	14 (4.81)
	무응답	1 (0.97)	4 (3.48)	5 (2.29)	아버지와 함께 산다	2 (1.40)	3 (2.03)	5 (1.72)
					혼자 산다	57 (39.86)	59 (39.86)	116 (39.86)
					무응답	5 (3.50)	0 (0.00)	5 (1.72)
경제 수준	상	5 (4.85)	5 (4.35)	10 (4.59)	상	9 (6.29)	4 (2.70)	13 (4.47)
	중	77 (74.76)	90 (78.26)	167 (76.61)	중	105 (73.43)	119 (80.41)	224 (76.98)
	하	20 (19.42)	20 (17.39)	40 (18.35)	하	25 (17.48)	25 (16.89)	50 (17.18)
	무응답	1 (0.97)	0 (0.00)	1 (0.46)	무응답	4 (2.80)	0 (0.00)	4 (1.37)

주. 괄호안의 값은 %임.

세($SD = 3.81$)였고,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3명($SD = 3.61$), 115명($SD = 3.60$)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302부의 설문지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2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80($SD = 2.20$)세였고, 남성과 여성은 각각 143명($SD = 2.50$), 148($SD = 1.66$)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방법

자료 수집은 교양 및 전공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또는 대학생 자녀를 둔 중년부모들로 이루어졌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직접 설문을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가산점이 제공되었다. 중년부모에 대한 설문지는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부모 또는 중년에 해당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성인에게서 설문을 받아오도록 부탁하였다. 설문지에는 설문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었고, 설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2013)이 개발한 개방형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갈등으로 인한 내재적 경험과 외현적 행동을 모두 보고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개방형 질문 1, 4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거친 다툼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을 떠올리도록 하였고, 질문 2, 3은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떠올리게 하여 갈등과 관련된 내재적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Wagner, Kiesler & Schmidt, 1995). 연구

대상자가 인위적으로 응답을 만들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탈하여 지적이거나 논리적인 응답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거나, 구체적인 경험을 추상화하여 응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경험을 준거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서수균 등, 2013에서 재인용).

1. 최근 혹은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자녀와 [부모님과] 생각(의견, 뜻)이 달라서 언짢았던 일[기분이 상했을 때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문제였습니까?
2. 최근 혹은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자녀에게[부모님께] 실망하거나 서운했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실망하거나 서운하셨습니까?
3. 최근 혹은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자녀에게[부모님께] 화난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화가 나셨습니까?
4. 최근 혹은 최근 몇 년간 대학생 자녀와 [부모님과] 언성을 높여 싸웠던 일을 두 가지 정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로 싸우셨습니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Hill, Thompson과 Williams (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분석(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표집이 크고, 짧고 간단한 답변을 분석하기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지승희, 오혜영, 2013; Chui, Jackson, Liu, & Hill, 2012). CQR은 귀납적 방법으로 자료들을 의미 있게 유목화 하는 범주들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Hill, Knox, Thompson, & Nutt-Williams, 2005: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에서 재인용). CQR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평정자와 감수자 간의 반복적인 의사교환을 통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명의 평정자(심리학 전공 박사과정)와 1명의 감수자(심리학 전공 교수)가 분석에 참여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3명으로 구성된 평정팀은 각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읽고,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어 갈등영역(domain)을 분류하였다. '1차 합의' 모임을 통해 갈등영역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이 영역에 따라 각자 응답 내용을 재분류하였고, '2차 합의' 모임을 통해 분류된 갈등영역에 따라 응답내용을 검토, 수정하고 재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평정자들 각자 갈등영역의 범주를 개발 한 후 '3차 합의'를 거쳤으며, 이에 대한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그 후 평정자들은 감수 받은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토의를 거쳐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정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일치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 중에서 갈등영역으로 구분하기 애매한 응답 즉, 갈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응답들(신세대와의 의식차이, 자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등)은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비율, 평균, χ^2 를 구하였다.

결 과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 영역

표 2에는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 영역이 제시되었다. 갈등영역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우선 중년부모가 지각한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갈등영역 즉, 자녀의 자기관리, 자녀와의 관계,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갈등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 N = 811) = 354.23, p = .000$). 중년부모는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중년부모가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58.45%)에는 생활관리와 대학생활이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갈등이 많았다($\chi^2(1, N = 474) = 50.03, p = .000$). 자녀의 자기관리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자녀와의 관계 영역(36.74%)에는 자녀의 관심 및 배려부족, 의사소통, 자녀의 분리 및 의존이 포함되었으며,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갈등이 많았다($\chi^2(2, N = 298) = 55.58, p = .000$).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영역(4.81%)에는 자녀간 문제와 이성친구 문제가 포함되었다($\chi^2(1, N = 39) = 2.08, p = .150$).

다음으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중년부모와의 갈등영역을 살펴보면, 대분류차원에서는 네 가지 갈등영역 즉,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표 2.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 영역 분류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 영역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녀의 자기관리 (474)	생활관리 (314)	시간/건강/돈관리(117)	부모와의 관계 (598)	부모의 관심 및 배려부족 (361)	이해및배려부족(158)				
		불규칙한생활습관(96)			무시(109)				
		물건정리및관리(49)			인정부족(43)				
		성실성부족(40)			약속불이행(27)				
		외모꾸미기(12)			경제적지원부족(24)				
	대학생활 (160)	진로(111)		의사소통(166)	언어적 공격(134)				
		학업소홀(36)			의사소통부족(32)				
		대학생활부적응(13)			부모의 편애(71)	부모의 편애(71)			
		자녀와의 관계 (298)				자녀의 관심 및 배려부족 (153)	무시(72)	대학생활(253)	진로(211)
							이해및배려부족(46)		학업소홀(42)
가사도움부족(17)	시간/건강/돈관리(67)								
약속불이행(12)	불규칙한생활습관(59)								
기념일챙기지않기(6)	물건정리및관리(29)								
의사소통(97)	언어적공격(45)		부모의 강요 및 간섭 (504)	생활관리(251)	사생활침범(29)				
	의사소통부족(45)				종교강요(22)				
	의사소통갈등(7)				자치반대(19)				
	자녀의 분리 및 의존(48)				간섭거부(22)	외모꾸미기(14)			
					자취요구(20)	가족모임/행사참석(12)			
독립성부족(6)		부모의 자기관리 (86)	부모생활관리(46)						
자녀 간 문제 (24)			자녀간배려부족(16)	부모 간 불화(63)	부모건강관리소홀(40)				
			자녀간다툼(8)		부모간불화(63)				
대인관계 (39)	이성친구문제 (15)		이성친구문제(15)	기타 대인관계 (75)	다른가족관계 (47)	부모와다른자녀의문제(39)			
						이성친구문제(28)	부모와조부모의문제(8)		
					이성친구문제(28)				

주. 괄호안의 값은 응답수임.

강요 및 간섭, 부모의 생활, 기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갈등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3, N = 1,326) = 602.95, p = .000$). 대학생 자녀는 중년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 영역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기타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장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가 중년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부모와의 관계영역(45.10%)에는 부모의 관심 및 배려부족, 의사소통, 부모의 편애가 포함되었으며, 제시

된 순서에 따라 갈등이 많았다($\chi^2(2, N = 598) = 219.31, p = .000$). 부모와의 관계 영역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된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38.01%)에는 대학생활과 생활관리가 중분류에 포함되었으며($\chi^2(1, N = 504) = .01, p = .929$), 그 다음 많은 갈등을 보인 부모의 생활 영역(11.24%)에는 부모의 자기관리와 부모간 불화가 중분류에 포함되었다($\chi^2(1, N = 149) = 3.55, p = .060$).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기타 대인관계 영역(5.66%)에는 다른가족관계와 이성친구문제가 포함되었으며, 다른가족관계가 이성친구문제보다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75) = 4.81, p = .028$).

중년부모가 지각한 대학생 자녀 간 갈등의 남녀차이

중년부모가 지각한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 영역에서는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2, N = 811) = 4.19, p = .123$). 그러나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 영역 중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 즉, 생활관리와 대학생활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 N = 474) = 10.91, p = .001$). 그 중 대학생활에서 중년남성이 중년여성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160) = 7.23, p = .007$). 또한 자녀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chi^2(2, N = 298) = 2.15, p = .342$), 하위 영역 중 자녀의 분리 및 의존에서는 중년여성이 중년남성보다 더 많은

표 3. 중년부모가 지각한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의 남녀차이

분류	남	녀	전체
	n (%)	n (%)	N (%)
자녀의 자기관리	237 (62.21)	237 (55.12)	474 (58.45)
생활관리	140 (36.75)	174 (40.47)	314 (38.72)
대학생활	97 (25.46)	63 (14.65)	160 (19.73)
자녀와의 관계	127 (33.33)	171 (39.77)	298 (36.74)
자녀의 관심 및 배려부족	71 (18.63)	82 (19.07)	153 (18.86)
의사소통	39 (10.24)	58 (13.49)	97 (11.96)
자녀의 분리 및 의존	17 (4.46)	31 (7.21)	48 (5.92)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17 (4.46)	22 (5.11)	39 (4.81)
자녀 간 문제	11 (2.89)	13 (3.02)	24 (2.96)
이성 친구문제	6 (1.57)	9 (2.09)	15 (1.85)
계	381	430	811

주. 괄호안의 값은 전체응답수에 대한 각 갈등영역의 응답수가 차지하는 %임.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48) = 4.08, p = .043$).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중년부모와의 갈등의 남녀차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중년부모와의 갈등 영역에서는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 N = 1,326) = 11.61, p = .009$).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 영역 중 부모와의 관계 영역 즉, 부모의 관심 및 배려부족, 의사소통, 부모의 편애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다($\chi^2(2, N = 598) = 18.18, p = .000$). 그 중 의사소통($\chi^2(1, N =$

$166) = 31.23, p = .000$)과 부모의 편애($\chi^2(1, N = 71) = 15.34, p = .00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 영역 중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에서는 유의한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chi^2(1, N = 504) = 1.17, p = .161$), 하위 영역 중 생활관리 영역에서는 남녀차이가 유의하였다($\chi^2(1, N = 251) = 4.88, p = .027$).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부모와 대학생 자

표 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중년부모와의 갈등의 남녀차이

분류	남	녀	전체
	n (%)	n (%)	N (%)
부모와의 관계	229 (40.18)	369 (48.81)	598 (45.10)
부모의 관심 및 배려부족	163 (28.60)	198 (26.19)	361 (27.22)
의사소통	47 (8.25)	119 (15.74)	166 (12.52)
부모의 편애	19 (3.33)	52 (6.88)	71 (5.35)
부모의 강요 및 간섭	229 (40.18)	275 (36.38)	504 (38.01)
대학생활	121 (21.23)	132 (17.46)	253 (19.08)
생활관리	108 (18.95)	143 (18.92)	251 (18.93)
부모의 생활	72 (12.63)	77 (10.19)	149 (11.24)
부모의 자기관리	47 (8.25)	39 (5.16)	86 (6.49)
부모 간 불화	25 (4.38)	38 (5.03)	63 (4.75)
기타 대인관계	40 (7.02)	35 (4.63)	75 (5.66)
다른 가족관계	22 (3.86)	25 (3.31)	47 (3.55)
이성 친구문제	18 (3.16)	10 (1.32)	28 (2.11)
계	570	756	1,326

주. 괄호안의 값은 전체응답수에 대한 각 갈등영역의 응답수가 차지하는 %임.

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의 세 영역을 알아보고 남녀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분석을 보면, 중년기 부모는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 자녀와의 관계 영역,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서 대학생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갈등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살펴보면, 생활관리와 대학생생활을 포함하는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58.45%)에서 중년부모가 대학생 자녀와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오던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더 큰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좌절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고병인, 1996; 김종숙, 2004; 유수남, 1980; 이기웅, 2002; 이영미, 한재희, 2013; 정준기, 1986). 중, 고등학생의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 중 핵심요인으로 드러났던 학업성취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취업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서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는 부모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명자, 1991; 이원희, 1992; 이주옥, 1993; 한남제, 1984).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로 나타날 경우, 이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영미, 한재희, 2013).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 다음으로 중년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영역(36.74%)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중분류를 살펴보면, 자녀의 관심 및 배려부족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 자녀의 분리 및 의존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에 접어드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면, 상실감이나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신기영, 옥선화, 1991; 이은아, 정혜정, 2007).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녀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선택이 폭이 넓어지면서 자유로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세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부모는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고 실망감에 빠지기도 한다(김종숙, 2004; 이원희, 1992).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영역이 사라져감으로 결국 대화의 단절이 가속화되고, 이는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김경숙, 1987; 이향련, 1986).

마지막으로 중년부모는 부모-자녀 외 대인관계 영역(4.81%)에서 대학생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영역은 자녀와의 갈등 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분류를 살펴보면, 자녀 간 문제와 이성친구문제와 관련된 갈등이다. 이는 한국중년여성의 자녀와의 갈등요인으로 자녀들 간의 갈등을 설정한 이원희(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보다 이성친구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감,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와의 세

가지 갈등영역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 중 진로, 학업소홀, 대학생활부적응을 포함하는 대학생활에서 중년남성(25.46%)이 중년여성(14.65%)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보다 남편이 자녀의 진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빈번히 경험한다고 보고한 김명자(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중년남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주옥(1993)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남녀에 따라 거의 비슷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데, 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경험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간섭거부, 자취를 요구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자녀의 분리 및 의존에서는 중년여성(7.21%)이 중년남성(4.46%)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와 더 밀착된 관계에 있으므로 자녀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명자, 1992; 이원희 1992).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중년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갈등에 관한 것이다. 대학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영역,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 부모의 생활 영역, 기타 대인관계 영역에서 중년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네 가지 갈등영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영역(45.10%)이었으며, 중분류를 살펴보면, 부모의

관심 및 배려부족, 의사소통, 그리고 부모의 편애 순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숙(2004)은 부모-자녀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를 부모의 권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가부장적 태도라고 했는데, 부모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한미선, 1992). 또한 학업성취, 역할수행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던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자녀에 대해 배척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이주옥, 1993; 정준기, 1986). 부모와의 소통의 측면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권위적으로 대할 때,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 설교, 비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어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경숙, 1987; 이향련, 1986).

그 다음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영역으로 자녀의 대학생활과 생활관리를 포함하는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38.01%)이다.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억압되고 폐쇄적인 중등교육 과정 속에 있다가 개방적인 대학의 학교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게 된다(전상진, 정주훈, 2006). 그러나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잔소리와 참견은 부모와의 갈등은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대학입시라는 큰 관문은 통과했지만 여전히 자녀의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러한 걱정을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김명자, 1991; 김종숙, 2004; 정현숙, 2009; 한미선, 1992).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 다음으로 부모의 생활 영역(11.24%)에서 갈등이 많이 보고되었다. 부모의 생활 영역은 부모의 생활관리문제, 건강관리소홀문제를 포함하는 부모의 자기관리와 부모 간 불화와 관련된 갈등이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부모의 귀가 시간이나 소비문제, 건강관리와 같은 부모의 생활관리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간 갈등이 가족체계에 긴장과 불만을 야기하며 부모 간 갈등이 지속될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쉽게 격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어 부모-자녀 간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혜진, 2003; 노윤옥, 전미경, 2006). 부모의 생활 영역은 중,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영역으로 청소년 후기인 대학생들만이 지각하는 갈등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가 중년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으로는 기타 대인관계 영역이 5.66%를 차지하였다. 이 영역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 갈등 영역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갈등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자녀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네 가지 갈등 영역에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 영역 중 의사소통과 부모의 편애에서, 그리고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 중 생활관리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중년부모세대에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잔존함으로 인해 딸에게는 가정 내 역할과 여성적 몸가짐을 더 강조하고 이러한 부모의 엄격함을 자녀가 관여나 지적으로 받아들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는 남자형제를 더 우선하고 막내나 외동보다 첫째나 중간 자녀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갈등을 더 많이 겪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고병인, 1996; 백미숙, 2000; 서진숙 등, 1992; 이주옥, 1993).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오영희(2004)의 연구와 여자 대학생은 부모님이 남자형제를 더 편애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한 서진숙 등(199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수, 지역적 편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부모-자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갈등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동거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는 부모의 자기관리 영역에서, 부모는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함께 생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난 후 부모와 더 친밀감을 보이고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을 더 적게 느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O'Connor,

Allen, Bell, & Hauser, 1996; Shaver, Furman, & Buhrmester, 1985; Sullivan & Sullivan, 1980).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부모와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을 줄이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빈도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자율성이 증가되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Dubas & Peterson, 1996; O'Connor et al., 1996).

상기 논의를 종합하여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 영역을 비교해 보면,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은 서로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년부모가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갈등인 자녀의 자기관리 영역 즉, 학업적인 면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갈등은 대학생 자녀가 중년부모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갈등인 부모의 강요 및 간섭 영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키시는 대로 하라는 말이 자녀에게는 강요 및 간섭으로 느껴지며, 스스로 알아서 하고자 하는 자녀의 욕구와 상치되면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년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갈등 중 생활관리 영역의 갈등내용보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가 강요하고 간섭한다고 지각하는 생활관리 영역이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년부모가 지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강요나 간섭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자녀는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해쳐나갈 힘을 기르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자녀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갈등과 중년부모가 대학생 자녀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하는 갈등은 관심 및 배려 부족과 소통의 어려움을 포함하는 부모-자녀 관계로 나타났다. 부모의 가부장적인 언행, 권위적인 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 무시하는 행동 등에서 자녀들은 자신이 배려 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한다고 지각한다. 그러나 부모는 대학생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와 상의 없이 결정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을 때 자녀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한다. 공통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비슷한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게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로가 이러한 기대를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로 인한 좌절을 야기하여 갈등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기 전에 상대방의 욕구와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부모의 권위문제, 가치관의 차이 등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장벽을 만들 수 있다. 최인제(2007)는 부모-자녀 간 만족스러운 대화는 갈등을 낮출 수 있고, 자녀의 심리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자녀 간 대화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백미숙, 2000).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제 영역을 확인하였다. 입시위주의 환경에서 학업성취가 요구되었던 중, 고등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갈등의 제 영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는 서로 비슷한 영역 즉,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과 관여 및 통제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의 욕구나 기대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부모-자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 고등학생과 부모 간 갈등 내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모의 생활에 대한 영역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중년부모와의 갈등에서 새롭게 밝혀졌으며, 이는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중년부모와 대학생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갈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를 한 단위로 하는 짝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기 중 독립해서 생활하는 대학생(39.86%)이 많아 그들의 부모로부터 설문을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를 한 단위로 표집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한 단위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커플분석을 통해 부모-자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의 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밝혀진 갈등내용에 대해 합의과정을 거쳐 갈등영역을 파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모-자녀 간 갈등 영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방법을 통해 중년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적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석화, 나동석 (2013). 대학생의 대학생활동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4), 49-71.
- 고기숙, 이혁구 (2004).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환경 특성 및 자원봉사 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9-41.
- 고병인 (1996). 청소년과 중년기: 스트레스와 갈등의 온상. *교수논총*, 8, 297-322.
- 구분용, 신현숙, 유제민 (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노윤옥, 전미경 (2006).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1), 1-15.
- 김경숙 (1987).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논문집, 15(2), 9-39.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 (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명자 (1992).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김수연 (1996).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1-14.
- 김애순, 윤진 (1993). 중년기의 위기: 중년기 위기감: 그 시기확인 및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 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3, 247-260.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자살시도경험, 정신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7.
- 김종숙 (2004). 한국사회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 세대 간의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집, 22, 15-24.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47-661.
-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김혜진 (2003).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준희 (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 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이윤희, 안정신, 정영숙 (2013). 한국 노인이 지각한 부부 및 성인자녀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89-412.
- 서진숙, 이정애, 박소현 (1992). 여자대학생과 부모의 갈등양상에 대하여. 심리연구, 30, 67-76.
- 신기영, 옥선화 (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신효식, 이경주 (2001).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가정학회지, 39(1), 29-38.
- 오영희 (2003). 여대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9, 23-35.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유수남 (1980). 어머니의 직업유무 및 가정환경

- 과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서경현 (2011).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원한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6(3), 595-608.
- 이기웅 (2002). 부모-자녀관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형 개발.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연구, 14(2), 1401-1422.
- 이원희 (1992). 한국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대응양상. 성인간호학회지, 4(2), 136-146.
- 이은아 (2007). 생태체계 변인과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 정혜정 (2007). 중년 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301-329.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선 (2009). 부모-자녀 갈등과 공감의 용서 및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련 (1986).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9). 대학생과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 및 교수(교사)와의 갈등 상황. 학생생활연구소, 26, 1-18.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상미 (201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중년기 부부의 직업,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기 (1986).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역할기대에 관한 실태연구.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1-19.
- 정현숙 (2009). 부모-대학생 세대 간 갈등 사례 연구: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 7-46.
-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 부양 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 2001~2010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4, 65-82.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한남제 (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미선 (1992). 중년기 부인의 자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조효진, 조운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32(3), 675-699.
- Alessandri, S. M., & Wozniak, R. H. (1987).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A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58*(2), 316-323.
- Ary, D. V., Duncan, T. E., Biglan, A., Metzler, C. W., Noell, J. W., & Smolkowski, K. (1999).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41-150.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71). Generational difference and the developmental stak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4), 249-260.
- Chiu, H. T., Jackson, J. L., Liu, J., & Hill, C. E. (2012). Annotated bibliography of studie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13-2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onald, M., Dower, J., Correa-Velez, I., & Jones, M. (2006).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hospital based with population based samples of young adul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1), 87-96.
- Douvan, E. A. M.,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Dubas, J. S., & Peterson, A. C. (1996). Geographical distance from parents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t and young adulthood. In J. A. Graber & J. S. Dubas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71*, 3-19.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y, 25*, 517-572.
- Hill, J. P., & Holmbeck, G. N. (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Annals of Child Development, 3*(45), 145-189.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O'Connor, T. G., Allen, J. P., Bell, K. L., & Hauser, S. T. (1996). Adolescent parent relationships and leaving home in young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71*, 39-52.
- Shaver, P., Furman, W., & Buhrmester, D. (1985). Transition to college: Network chang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S.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wbury Park, CA: Sage.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teinberg, L. D. (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 1062-1072.

- 176), 833-840.
- Steinberg, L. D., & Hill, J. P. (1978).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age, the onset of puberty, and formal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6), 683-684.
-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 Psychology, 16*(2), 93-99.
- Wagner, C. C., Kiesler, D. J., & Schmidt, J. A. (1995).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38.
- Warrick-Swansen, S. A. (1999). *Risk factors of comorbidity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and depressive disorders in school-ag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원고접수일 : 2015. 03. 20.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0. 04.
게재결정일 : 2015. 10. 3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 Children

SuGyun Seo¹⁾ JeeHye Jeon¹⁾ JeongShin An²⁾ YoungSook Chong¹⁾

¹⁾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confli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 children. A total of 218 Korean middle-aged parents between 40 and 59 years of age and 291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s perceived by the middle-aged parents as conflict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university students were children's self-car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cept parent-child. Second, the conflicts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with their middle-aged parents were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parents' demanding and interference, parents' lives, and ot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inally, gender differences a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 Age, Parents-Children Conflict, Conflict with University Student Children, Exploratory Research